

## 기획의 말

김 정 희(서울대학교)

‘문화적 예외’라는 표현이 이제는 제법 귀에 익숙하다. 그것은 ‘문화’가 여느 상품과는 다르다는 것, 어떠한 신자유주의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화만큼은 그사회가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를 둘러싼 그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프랑스 영화다. 원래 영화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대중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탄생했지만 프랑스 영화는 상당히 일찍부터 대중성과 거리를 두어왔다. 프랑스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흥행으로 이어지는 ‘재미’보다는 새로운 미학의 창조로 이어지는 ‘예술성’이고, 따라서 무차별적인 상품시장의 논리에 맡겨버릴 수만은 없는 성격을 가진 것이다. 자국 영화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그토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나선 데에는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날 대자본을 뒤에 업은 미국 블록버스터의 공세로 프랑스 영화 고유의 입지를 지켜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 세계 최초로 영화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이래, 허구영화를 처음 선보였던 멜리에스, 20년대의 초현실주의와 아방가르드 영화, 30년대의 시적 리얼리즘, 60년대의 누벨바그, 90년대의 누벨 이마주 등 프랑스는 세계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들의

산실이었다. 이들 용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새로운 경향의 창조는 프랑스 영화가 지닌 가장 큰 강점으로서 영화의 예술적 지평을 계속해서 넓혀 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프랑스 영화가 예술적이라 할 때 그 예술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프랑스 영화가 문학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화와 문학의 만남은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에게 시나리오 집필을 의뢰했던 1910년대 초기 예술영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문학, 음악, 회화 등 다양한 예술분야의 실험적 시도가 어우러졌던 초현실주의 영화를 거쳐 1930년대 이른바 ‘문예영화’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다. 당시 자크 프레베르와 같은 문인들이 썼던 서정미 넘치는 시적 대사들은 영화와 문학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처럼 프랑스 영화가 문학을 수용하는 현상은 단순히 영화에 문학적 향기를 지닌 대사를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기존 문학작품의 영상화 및 문학적 테마의 영화화, 문학적 서술구조의 영화적 활용, 작가를 표방하는 감독, 문학적 분석틀을 활용한 비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문학과 영화의 다채로운 교차양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섯 편의 논문은 필름 느와르와 같은 대중적인 영화에서 브레송의 예술영화에 이르기까지, 소위 주류영화와 비주류영화를 총 망라한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영화와 문학이 서로 어떻게 스며들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독자적인 스타일을 창조해나가는지를 분석해보이고 있다. 대부분 영화학을 전공한 필진은 모두 학부과정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학은 이들이 분석해보여주는 영화작품 내부만이 아니라 이들이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미 잠재해 있기도 한 것이다. 이들의 문학적, 영화적 감수성은 재미없는 영화로 소문난 프랑스 영화들을 정말 보고 싶은 영화로 다시 탄생시키고 있다.